

미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 인지와 갈등대처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Family of Origin Healthy and Conflict Coping Behavior in Unmarried Males and Females*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박 정 윤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Park, Jeong-Y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the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in both male and female subjects currently in the dating population. The subjects consisted of 250 single male and female who had been dating for more than three months. A survey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and results of survey were analyzed by the SPSS PC 12.0 program.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conflict coping behavior with variable that is related to a socio-demographic wa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nner of receiving assistance from external resource in terms of gender, education level, religion and age. The rational coping behavior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gender, and shrinking coping behavior was associated with also gender and sibling.

Second, rational coping skills and shrinking coping skills, which are date-associated variables in conflict coping behavior, were influencing factors in the individuals' consideration of a future-relationship with their partner.

Third, the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was associated with the manner in which the individual acquired external assistance and rational coping behavior.

주제어(Key Words): 원가족(family of origin), 갈등대처행동(conflict coping behavior), 건강성(healthy)

I. 서론

최근 몇 십년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결혼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부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 과거의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의미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결혼전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이성을 접촉할 기회가 증가되면서, 사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율적인 배우자 선택인 자유혼을 선호하게 되었다. 즉,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한 사랑을 중심으로 자신이 꿈꾸는 결혼생활에 적합한 배우자를 고르고 결혼하는 경향이다. 미혼 남녀들은 데이트를 통해서 이성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자신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전통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성인초기의 발달과제는 결혼 전 개인적으로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자아를 형성하며 부모로부터 심리적·물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성인초기는 주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야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성교제는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경험이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발달 뿐 아니라 배우자선택과 결혼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까지의 입시준비로 인해서 성인초기가 생물학적 연령이 성인이지만 독립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에게 의존적이다(김순기, 유영주, 2001).

성인으로서 이성교제를 하는 커플들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높은 친밀감과 자율성을 공존해야한다고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반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과도한 친밀감이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갈등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데이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개인의 원가족 내의 문제는 성인초기의 원만한 이성교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성간의 갈등문제는 대처방식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정도는 원가족에서부터 학습되어진 것으로,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쳐 이성관계의 해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차정화, 2002). 따라서 데이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자신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국내에서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는 성과 사랑, 데이트 폭력 등을 다루어왔으며 이성교제의 어려움과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실태분석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성교제 시 친밀감 발달과 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전영주, 2002; 차정화,

2002)들이 이루어져왔으며, 데이트 폭력 현황을 통한 갈등양상에 대한 연구(김정란, 1999; 손혜진, 전귀연, 2003)들이 이루어져왔으며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연구(이수희, 2004)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며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족발달이론과 다세대 가족체계론 접근에서 성인초기의 낭만적 관계가 개인 발달적,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가족 요인에 의한 세대전수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세대의 커플관계가 그 다음 세대의 커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Rossi & Rossi, 1990; 전영주, 2002 재인용)와 원가족의 기능성의 수준이 다음 세대의 커플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에서 원가족의 영향력이 미혼남녀의 데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친밀한 관계나 가족 간 상호작용의 과정을 원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각 개인들이 자신의 원가족의 건강성을 지각하는 방식과 원가족 내의 관련 변인들이 현재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로는 원가족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또는 부부갈등과의 관계(전춘애, 1994; Lavert, 1984; Mee-Gaik, 1991), 자아분화와 갈등 대처(한미향, 1999)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때 데이트 관계에서 커플의 원가족이 데이트 당사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원가족 변인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대상이 미혼 남녀에 적용한 경우보다는 기혼 부부에게 치중되고 있는데 기혼부부의 결혼생활에 원가족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배우자선택과정에서부터 연장해서 보면 원가족 요인이 미혼 남녀의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데이트 중인 미혼 남녀의 갈등대처행동과 원가족건강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데이트 관계의 긍정적 상호관계에만 관심을 가지던 것을 갈등적 측면에서의 상호관계 유지 양상을 살펴보고, 기혼부부 중심으로 적용되었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원가족 변인이 미혼남녀에게도 해당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데이트 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건설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원만하고 발전적인 데이트 관계를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원가족 건강성

원가족(family of origin)은 한 개인이 태어나 사회, 심리적으로 소속감을 공유하는 가족으로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의 가족을 말한다. 원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국내연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정, 김명자, 1999; 남순현, 2000).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원가족은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하여 결혼생활을 할 때 부부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원가족의 건강성과 부부의 결혼 만족도(김현정, 김명자, 1999), 원가족과 자아정체감, 심리적 안정과의 관련성(김순기, 유영주, 2001), 원가족 분화와 결혼만족도(김순기, 유영주, 2001),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관련성(이현주, 김순옥, 1997; Mee-Gaik, 1991), 원가족 척도 자체에 관한 연구(최현미, 1997) 등으로 원가족 관련변인이 기혼부부의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원가족에 관한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원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한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Forrest, 1991; Wilcoxon & Hovestadt, 1983),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아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고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김명자(1999)는 원가족의 건강성이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Benson, Larson, Wilson, & Demo(1993)는 근원가족의 관계가 청소년 후기의 이성교제 영향을 미쳐 역기능적 의사소통(회피적)을 한다고 하였다. 김순기, 유영주(2001)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지각이 자아정체감과 결혼 후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원가족에 대한 태도는 성인자녀의 개인 및 결혼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고하고 있다. 국외 연구(Lane, Wilcoxon, & Cecil, 1988)에서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변인이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결혼적응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olman과 그의 동료(1994)는 부모의 결혼생활, 부모-자녀관계, 가족환경적 배경이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밝히고 있으며, Lane, Wilcoxon, & Cecil의 연구와는 반대로 남성이 가족환경적 변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양진선, 2004 재인용)으로 밝히고 있다.

2. 갈등대처 행동

갈등은 개인 내부에서 또는 두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자체의 문제보다는 갈등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은 가족갈등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갈등대처행동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갈등 대처행동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Pearlin & Schooler(1978)은 충고하기, 감정표출, 협상, 체념, 선택적 무시를 제시하였고, Lazarus & Folkman(1984)는 대처를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서적 대처로

구분하였다(이수희, 2004 재인용). Roth & Cohen(1986)은 접근대처와 회피대처로 구분하였다(이수희, 2004 재인용).

국내에서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는 갈등대처행동 유형분류와 영향변인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갈등대처행동은 긍정적 대처와 부정적 대처행동을 분류되는데 김예정, 김득성(1993)은 폭력, 공격, 무례, 온건 행동으로 분류하였고 김정란(1999)은 적극적, 회피적 대처로, 송말희(1990)는 긍정적 대처와 부정적 대처로 구분하였고 최규련(1994), 차정화(2002)는 외부도움 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표출, 행동표출, 회피로 분류하였다.

한편, 갈등대처행동에 영향변인으로는 인구사회적변인(성별, 연령, 학력, 직업, 수입 등), 친밀감, 자아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는데 이성교제 시 여성이 이성적 방법과 언어적 공격을 남성보다 많이 사용하며 여대생의 경우 부적절한 갈등대처행동으로 인해서 불쾌감, 친밀감 상실, 대화단절, 실연 등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안경애, 2003). 미혼 남녀와 갈등대처와의 관련 연구는 첫째, 데이트 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김예정, 김득성, 1999; 김정란, 1999; 손혜진, 전귀연, 2003). 데이트 시의 폭력은 원가족의 경험이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데이트 시 나타나는 갈등행동의 유형을 성별차이를 통해서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기혼부부에서와 같이 갈등표출행동에 영향변인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갈등대처행동과 자아분화 수준을 제시하는 연구(제석봉, 1989; 이현주, 김순옥, 1997; 이신숙, 2000; 한미향, 1999)가 있다. 부부간 갈등대처는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이신숙, 2000; 한미향, 1999).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처행동인 이성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회피 및 부정적 행동표출과 같은 행동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석봉(1989)은 자아분화 정도가 대인관계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분화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분화정도가 낮을수록 대인관계의 갈등이 많았다. 이현주, 김순옥(1997)은 부부의 자아분화도와 갈등대처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부부 모두 자아분화 정도에 따라서 갈등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자아분화 정도에 따라서 갈등대처 유형 전체에 차이를 보였는데 자아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건설적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아분화도와 갈등대처행동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3. 원가족 건강성과 갈등대처행동 관련성

원가족 건강성과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공

통적으로 대상이 기혼 부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원가족 변인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준 연구(남순현, 2000; 정문자, 김연희, 2000)들의 공통점은 부모의 부부관계가 기혼 자녀의 결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미 보고 되어 왔다. 정문자, 김연희(2000)는 자녀독립기 가족의 많은 역기능적 증상은 부모의 부부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의 결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보고들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성인기 자녀의 커플관계에 원가족의 특성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문자, 이종원(2003)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변인을 밝히고 있다. 원가족 변인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자아분화, 부모의 자아상태, 가족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교제 관계에 미치는 연구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순현(2000)은 미혼자녀의 이성관계에서 친밀감이 부모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영주(2002)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원가족 변인이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미혼남성의 원가족 분화가 높을수록 커플친밀감이 높은 반면에 커플자율감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주(2002)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원가족 변인이 미혼 남성 개인의 불안에 영향을 주게 되며 커플친밀감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원가족의 변인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관계형성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좀 더 이성교제 시 관계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커플 갈등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정화(2002)는 미혼남녀의 가족분화가 이성관계의 갈등 대처에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데이트 관계 남녀 모두 친밀감이 높을수록 회피보다는 이성적 대처, 자율감이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이성교제와 데이트폭력과의 관련성 연구에서(김예정, 김득성, 1999) 여성보다는 남성이, 원가족에서 부모의 폭력을 자주 목격했을수록 폭력이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하여 원가족 건강성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Larson, Benson, & Wilson, 1998) 원가족 분화와 청년기 결혼관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원가족에서 삼각화, 융합과의 역기능적 가족과정을 겪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의 연구에서 원가족의 건강성과 결혼에 대한 인지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원가족의 건강성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3)은 원가족 관계가 청소년 후기의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전영주, 2002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원가족의 건강성은 기혼 부부에 게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결혼 전 데이트와 배우자 선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본 연구에서 이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은 3개월 이상 데이트를 지속하고 있는 미혼 남녀 250명으로 하였다. 교제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커플이 일회성 만남으로 교제하는 있는 대상을 포함하지 않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커플간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전영주, 2002; 김득성, 김예정, 1999)에서 미혼자의 이성교제를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 최소 데이트 기간을 2개월로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대상자의 데이트 기간을 3개월 이상 제한하였다.

자료수집은 현재 데이트 중인 대학재학 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표집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고, 조사방법은 우편과 면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250부 중 24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과 연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2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원가족 건강성 지각 척도는 Olsons, Portner, & Lavee(1985)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s Scales III)를 국내 연구에서(전귀연, 최보가, 1993) 수정 보완한 20문항을 본 연구에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FACES III 척도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홀수 문항이 가족응집성에 해당하며, 짝수문항이 가족적응성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구성되어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하며, 5점이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성과 응집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성교제 커플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척도는 차정화, 전영주(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트 커플의 갈등대처행동을 파악하는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2개 문항 중 외부도움이 8개 문항, 이성적 대처가 4문항, 회피가 5문항, 행동표출(부정적)이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외부도움은 동성친구나 이성친구,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척도	하위변인	문항수	최소-최대	M (SD)	Cronbach's- α
갈등대처행동	외부도움	8	8 - 24	2.63 (.60)	.6925
	이성적 대처	4	8 - 20	3.65 (.58)	
	회피	5	5 - 23	2.56 (.80)	
	행동표출	5	5 - 21	1.45 (.60)	
원가족 건강성	응집성	10	16 - 49	3.56 (.58)	.8954
	적응성	10	11 - 46	3.28 (.57)	

전문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 성직자 등에게 갈등해결을 위한 도움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성적 대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현실로 받아들이며,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다. 회피는 서로 부딪치지 않거나, 연락하지 않고 냉전 상태를 유지하거나, 파트너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행동표출은 큰소리,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려고 시늉하는 행동, 실제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구성되어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하며, 5점이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파트너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적정성 판별하기 위해서 신뢰도 검사를 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원가족 건강성 집단을 분류하여 갈등대처행동의 정도의 차이를 집단간 비교하기 위해서 t -test, ANOVA와 사후검사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현재 데이트 중인 파트너와의 관계 특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9.1%, 여성이 50.9%였다. 연령구성은 “20세” 33.4%, “21-23세” 34.0%, “24-31세”가 32.6%의 분포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

교” 33.9%, “천주교”가 15.0%, “불교”가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졸”(11.2%), “대학원졸”(6.9%), “고졸”(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 특성에서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이하”인 경우가 21.6%, “막내”가 19.4%로 비슷하였으며 “외동”인 경우가 6.5%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족의 월수입은 “300-500만원 사이”가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사이”(30.2%), “100-200만원 사이”(18.1%), “500만원 이상”(16.2%), “100만원 미만”(2.6%) 순이었다. 응답자의 가족 수입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여겨진다.

조사대상자들의 데이트 관련 특성에서 소개방법은 “이미 알고 있던 사이”로 응답한 비율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 소개”가 33.6%를 차지한 반면 “친인척 소개”(1.8%), “사이버 채팅”(2.7%) 등으로 소개받은 비율은 매우 미미하였다. 교재기간은 “6개월 이내”가 2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개월-12개월”(23.0%), “13개월-24개월”(22.6%), “25개월-36개월”(10.2%), “37개월 이상”(10.2%)의 순으로 나타나서 데이트 기간은 초기인 경우에서 장기간 데이트인 경우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파트너와의 연령차이의 특성을 보면 “동갑”이 40.0%로 1/3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2살 차이”가 28.5%, “3-4살 차이”가 21.7%, “5살 이상 차이”가 6.8%여서 응답자들이 비슷한 연령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의향에 대해서는 “좀 더 교제 후 생각하겠다”가 40.6%였으며, “결혼을 생각 중이다”가 36.6%,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가 22.8%였다. 이는 응답자의 연령이 20대 초, 중반의 대학생의 비율이 높고, 교재기간이 1년 미만이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데이트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사례수에 따라 재구성하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데이트 관련변인 특성

N=232

변인	집단	N(%)	변인	집단	N(%)	
성별	남 자	114(49.1)	출생 순위	장 남 (녀)	122(52.6)	
	여 자	118(50.9)		차 남 (녀)	50(21.5)	
연령	19세 - 20세	77(33.4)	소개 방법	막 내	45(19.4)	
	21세 - 23세	70(34.0)		외 동	15(6.5)	
	24 세 이상	76(32.6)		친 구 소 개	74(31.9)	
종교	기 독 교	91(39.1)	소개 방법	친·인척 소개	4(1.7)	
	천 주 교	35(15.0)		사이버 채팅	6(2.6)	
	불 교	28(12.0)		이미 알던 사이	109(47.0)	
	무 교	79(33.9)		기 타	27(11.6)	
학력	고 졸	10(4.3)	교제 기간	무 응 답	12(5.2)	
	대학 재학 중	180(77.6)		6개월 미만	70(29.8)	
	대 졸	26(11.2)		6개월 - 1년 미만	54(23.0)	
	대 학 원 졸	16(6.9)		1년 이상 - 2년 미만	53(22.6)	
				2년 이상-3년 미만	24(10.2)	
가족 수입	100만원 미만	6(2.6)	나이차	3년 이상	24(10.2)	
	100이상-150만원 미만	9(4.1)		무 응 답	7(4.3)	
	150이상-200만원 미만	31(14.0)		결혼 고려 여부	동 갑	94(40.0)
	200이상-300만원 미만	67(30.2)			1살-2살 차이	67(28.5)
	300이상-500만원 미만	74(32.9)			3살-4살 차이	51(21.7)
	500만원 이상	36(16.2)			5살 이상 차이	16(6.8)
가족 형태	부부+미혼자녀	212(91.4)	무 응 답		4(3.0)	
	부부+기혼자녀+미혼자녀	20(8.6)	결혼을 고려하고 있음		85(36.6)	
			결혼을 고려하지 않음	53(22.8)		
			좀 더 교제 후 고려	94(40.6)		

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 대처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첫째, “외부도움을 받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t=-4.622, p<.001$), 학력($t=2.627, p<.01$), 종교유무($t=4.871, p<.001$), 연령($t=3.929, p<.05$)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졸이상의 졸업자보다는 현재 대학에 재학생이, 종교를 있는 집단이, 연령이 19-20세 집단이 24세 이상 집단보다 파트너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서 친구나 성직자, 친척, 주변의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성적 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t=2.049, p<.05$)이었고 다른 변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성보다 남성이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이성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의 남녀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남성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도록 사회화되었고 여성은 주관적이며 감성적인 면을 치중하도록 사회화되어왔기 때문에 이성간의 관계에서도 갈등해결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회피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인 변인은 성별($t=-5.754, p<.001$)과 출생순위($F=3.772, p<.05$)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첫째, 막내, 외동보다는 차남과 차녀들이 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유사한 결과로서 여성이 남성보다 방어적 대처행동을 많이 취하며 차남(녀)가 다른 형제순위에 비해 갈등해결에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표출 대처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인구사회적 변인은 없었다. 본 연구대상이 현재 데이트 관계에 있는 커플이며, 행동표출이 신체적인 폭력과 관련

〈표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행동 유형의 차이

N=232

변인		N	외부도움	이성대처	회 피	행동표출
성 별	남 성	114	2.45(.55)	3.70(.55)	2.26(.72)	1.38(.52)
	여 성	118	2.80(.59)	3.56(.60)	2.84(.77)	1.51(.77)
<i>t</i>			-4.622***	2.049*	-5.754***	-1.593
학 력	대학 재학 중	190	2.67(.55)	3.63(.56)	2.56(.81)	1.44(.60)
	대학 졸업자	42	2.39(.66)	3.64(.65)	2.56(.78)	1.52(.65)
<i>t</i>			2.627**	-.065	-.032	-.811
종 교	종교 있음	153	2.75(.62)	3.65(.59)	2.59(.80)	1.45(.58)
	종교 없음	79	2.39(.46)	3.63(.56)	2.50(.84)	1.44(.65)
<i>t</i>			4.871***	.258	.743	.050
가족 수입	300만원 미만	122	2.61(.55)	3.68(.54)	2.59(.83)	1.42(.57)
	300만원 이상	110	2.65(.65)	3.63(.62)	2.50(.76)	1.48(.66)
<i>t</i>			-.522	.068	.833	-.811
연 령	19세 - 20세	77	2.76(.53) a	3.58(.56)	2.59(.77)	1.52(.72)
	21세 - 23세	70	2.62(.64) b	3.62(.57)	2.64(.81)	1.42(.60)
	24세 이상	76	2.37(.59) c	3.74(.60)	2.45(.81)	1.40(.46)
<i>F</i>			3.929*	1.638	1.143	.834
출생 순위	장남, 장녀	122	2.59(.62)	3.67(.63)	2.44(.79) a	1.47(.71)
	차남, 차녀	50	2.58(.55)	3.57(.55)	2.84(.84) b	1.45(.46)
	막 내	45	2.68(.58)	3.61(.51)	2.63(.73) a	1.49(.52)
	외 동	15	2.88(.61)	3.76(.38)	2.29(.64) a	1.21(.23)
<i>F</i>			1.268	.589	3.772*	.856

* $p < .05$ *** $p < .001$

된 부정적 요소를 포함하기에 평균값에서도 낮은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갈등표출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차이는 선행연구(조유리, 2000; 정은희, 2004)와 유사한 결과인데 갈등해결방식이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데이트 관련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

커플의 데이트에 대한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트 변인을 사례수 비율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외부도움의 갈등대처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낸 데이트 변인은 없었다. 즉 응답자들이 파트너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의 교제기간, 나이차, 소개자, 장래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 대처($t=2.466$, $p < .05$), 회피의 대처행동($t=9.025$, $p < .001$)은 결혼에 대한 고려변인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현재의 파트너와 장래에 결혼을 생각하는 안정적

인 관계일수록, 그렇지 않은 관계에 비해서 파트너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트너와 갈등을 일으켰을 때 현재 파트너와의 결혼을 고려하지 않거나 중도적인 집단이 결혼을 고려하는 집단보다 회피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표출의 대처양식은 데이트 관련 변인은 교제기간과 나이차로 나타났다. 교제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이 1년 미만인 집단보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많으며, 동갑 집단이 3살 이상인 집단보다 부정적인 행동으로 갈등을 노출하는 경향이 높았다. 행동표출이 데이트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행동표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 주목할만하다. 결국 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 표현을 하는 것인 개인적 변인보다는 상호작용의 변인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4. 원가족 건강성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원가족 건강성 인지 정도에 따른 갈등대처

〈표 4〉 데이트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 행동의 차이

N=232

변인		N ^b	외부도움	이성대처	회피	행동표출
교제기간	1년 미만	124	2.60(.61)	3.64(.60)	2.57(.78)	1.37(.51)
	1년 이상	101	2.66(.59)	3.64(.56)	2.50(.81)	1.54(.69)
t			-.821	.061	.597	-2.184*
소개자	친구, 친척소개	78	2.57(.59)	3.68(.56)	2.62(.75)	1.49(.63)
	자신 직접	115	2.65(.65)	3.63(.59)	2.53(.84)	1.42(.59)
t			-.860	.548	.822	.829
나이차	동갑	94	2.64(.59)	3.60(.57)	2.62(.77)	1.57(.71) a
	1-2살 차이	67	2.61(.60)	3.70(.56)	2.44(.83)	1.38(.56) ab
	3살 이상 차이	67	2.64(.63)	3.66(.62)	2.55(.81)	1.31(.41) b
F			.045	.641	.895	4.105*
결혼에 대한 고려	결혼생각 있음	85	2.58(.64)	3.76(.55) a	2.28(.74) a	1.44(.67)
	결혼생각 없음	53	2.64(.52)	3.59(.56) b	2.82(.67) b	1.43(.53)
	중도적임	94	2.67(.61)	3.59(.61) b	2.64(.84) b	1.45(.58)
F			.364	2.486*	9.025***	.017

*p<.05 ***p<.001

^b 데이트 관련 변인은 무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하여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t-test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원가족 건강성은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분류하여 대처행동 하위변인별 집단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응집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처행동의 외부 도움과 이성적 대처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다. 응집성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커플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외부의 도움과 이성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응집성과 마찬가지로 적응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더 이성적 대처나 외부도움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순기, 유영주, 2001)에서 기혼 부부가 원가족 건강성의 인지가 결혼만족도나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볼 수 있

다. 자신의 원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가족 내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데이트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을 위해서 일차적인 것이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에 결혼은 서로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적절한 이성교제를 거쳐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연애훈이나 절충혼이 선호하는 추세이다.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에

〈표 5〉 원가족 건강성 지각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

N=232

변인		N ^b	외부도움	이성대처	회피	행동표출
응집성	낮은 집단	122	2.54(.61)	3.56(.57)	2.53(.80)	1.42(.56)
	높은 집단	110	2.75(.59)	3.98(.59)	2.57(.79)	1.46(.62)
t			-2.596*	-2.207*	-.376	-2.184*
적응성	낮은 집단	118	2.53(.56)	3.54(.57)	2.49(.78)	1.42(.57)
	높은 집단	114	2.78(.61)	3.75(.57)	2.62(.78)	1.50(.65)
t			-3.499*	-2.743*	-1.187	-.900

*p<.05

이르게 된다. 바람직한 이성교제는 커플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포함한다. 이성교제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데이트 관계의 정서적 친밀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갈등에 대한 분석은 미미하며 이성간의 갈등 및 대처행동은 기혼 부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성교제-배우자선택-결혼생활을 연속선상의 맥락으로 본다면 이성교제에서의 관계는 결혼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한 개인의 갈등대처행동은 가족생활에서부터 학습된 양식으로 원가족간의 대처양식이 이성교제, 사회적 대인관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원가족 건강성 인식이 이성교제의 갈등대처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점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하위요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갈등발생 시 외부도움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성별, 학력, 종교, 연령이며, 이성적 대처행동은 성별, 회피 대처행동은 성별과 출생순위로 나타났다. 외부도움이나 회피행동은 여성에서, 이성적 대처는 남성에서 자주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갈등에 대처하고 있으며 남성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처행동차이로 인한 부가적인 갈등을 유발될 수 있다.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와 연계해 볼 수 있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접근하려고 한다.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해서는 여성에게도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 출생순위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를 보이는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출생순위는 가족 내에서 개인에게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하게 됨으로 성장과정에서 출생순위에 따른 학습된 행동양식이 데이트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원가족 내에서 개인의 출생순위는 개인의 일상생활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으로 데이트시에 출생순위에 따른 가족의 기대와 지위,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으로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데이트 관련변인이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제기간과 커플의 나이차에 따라서 부정적 행동 표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교제기간이 길고, 동갑인 커플들이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커플들이 관계가 장기화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긴장감이 줄어들고, 관계해체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 부정적

행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정적 행동표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데이트 폭력에서 폭력을 애정적 표현 중 하나인 것으로 여기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커플들은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표출을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커플관계의 부정적 표출행동에 대한 파트너의 수용은 병리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갈등발생 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표출행동 감소시키고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적절한 분노표출 행동을 교육하여 건강한 이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원가족과 갈등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원가족 건강성 인지는 긍정적인 갈등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이 응집성과 적응성이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커플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성적인 대처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성과 적응성의 적절성은 가족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친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응집성과 적응성을 가진 가족일수록 갈등발생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가족의 상호간의 결속을 바탕으로 가족내외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에 적극적인 행동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험들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데이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원가족으로부터 문제해결능력을 학습하였으므로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자원탐색, 상호간의 결속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원가족 내에서 갈등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해서 긍정적인 갈등대처양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갈등표출행동에 출생순위, 데이트의 장기화 영향이 주고 있음은 원가족의 간접적 영향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정적이고 원만한 커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관계에 있는 자신과 파트너 각각이 현재의 가족 내 관계가 원만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원가족과의 관계가 두 사람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이성교제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시에 이성간 갈등문제에 대해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가족과의 관련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데이트 관계에서부터 기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원가족의 영향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임으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이성교제에서부터 원가족의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에 예측하

여 결혼에 이르게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원가족 건강성과 갈등대처행동을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연구대상이 서울·경기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본 연구는 갈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트 변인과 원가족 건강성만은 변인으로 살펴보고 있음으로 추후에 영향변인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여 분석함으로써 행복하고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김순기, 유영주(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김예정, 김득성(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행동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1(6), 127-139.

김예정,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I, *대한가정학회* 37(10), 27-42.

김정란(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 김명자(1999), 근원가족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적응의 관계 -청주시 결혼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39-60.

남순현(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성인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예진, 전귀연(2003), 미혼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1(2), 43-63.

송말희(1990), 기혼남녀의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안경애(2003), 여대생의 이성교제 중 갈등표출행동 유형과 영향 요인, *간호과학* 15(1), 50-60.

양진선(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수희(2004), 대학생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이상 파트너와의 갈등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신숙(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23-43.

이현주, 김순옥(1997), 부부의 자아분화정도와 갈등대처 유형

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89-114.

전영주(2002), 한국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원가족 요인이 불안 매개로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1), 207-221.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문자, 김연희(2000), 가족생활주기별 내담자의 무제와 가족치료기법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1), 3-29

정문자, 이종원(2003), 원가족 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4.

정은희(2004), 원가족분화, 자존감과 부부갈등 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은경(200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대처 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차정화(2002), 가족분화와 이성교제 커플의 정서적 역동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차정화, 전영주(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최현미(1997), 원가족척도 연구 - 결혼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enson, M. J., Larson, J. H., Wilson, S. M., & Demo, D. H.(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Family*, 55, 663-672.

Forrest, M.(1991), Family-of origin emotional health experience as predictors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Hovestadt, J. A., Anderson, T. W., Pierly, P. F., Chchran, W. S., & Fine, M(1985), A family of 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Larson, J. H., Benson, M. J., & Wilson, S. M., Medora, N.(1998), Family origin influences on marital attitudes and readiness for marriage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750-768.

Lavert, P. J.(1984),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satisfaction an exploratory analysis based on the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Mee-Gaik, N. G.(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healthy

unlike, unhealthy like, unhealthy unlik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en's University.

Wilcoxon, S. A., & Hovestadt, J. A.(1983), Perceived health and similarity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dynamic adjustment for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9(4), 431-434.

(2007년 2월 8일 접수, 2007년 4월 10일 채택)